



“연중 제 4주일”

[마태 5, 1-12]

http://www.sjkoreancatholic.org/ 2011.1.30

## 금주의 강론

[배경민 신부님 강론에서]



과연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세적인 것 곧, 부와 명예, 권력과 지위에 있다고 할 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에만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고통과 걱정과 시련에도 행복은 있습니다. 불행이라고 느끼는 일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등 오히려 인간적으로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시적인 것들이 영원한 구원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 선언은, 우리가 추구하던 행복의 출발점이며, 분명 “나만을 위한” 이기적 삶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를 위한” 이타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요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행복 선언에서 그것을 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란 성령의 인도를 통해, 세속적 가치나 불의한 사회 구조를 하느님이 바라시는 세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세상과 인간에 대해 증오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며, 남을 판단하거나 단죄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의 것으로 채워진,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킨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이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일합니다. 문득 요한 금구 성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훌륭한 말씀은 감동을 주지만, 훌륭한 표양은 주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구정미사 (1/30) 일요일 복장에 관하여  
자매님 ; 한복, 형제님; 양복 정장으로 결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성숙 리마 자매님 1/27-2/15일까지 여정으로 한국으로 떠나시고, 최 광섭 요한 형제님과 최상진 엘리사벳 자매님은 2/1일부터 2/11일까지 짧은 여정으로 오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주님 예로니모 단장님과 도미니카 자매님 한국 방문을 즐겁고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단원들 가족에 감사드립니다.

● 연습용 음악파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최다니엘 제공

\*\* Regina Coeli (Iambillotte 곡)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2197>



그때에 1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2 예수님께서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3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7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8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9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10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1분 명상

“행복한 사람“



욕심 없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일하는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진정한 동료들을 얻을 것입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일터를 성당으로 바꿀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한 동료를 기다려 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소외된 동료를 보살피 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빛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수고와 보람을 봉헌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느님을 만날 것입니다.



“당신의 하느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당신 동료들이 아니라 당신께 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9)

금주의명언

“재능을 적게 받았다면 덕으로 남보다 뛰어나려고 노력하라.”